Journal of the Korea Academia-Industrial cooperation Society
Vol. 21, No. 11 pp. 171-179, 2020

https://doi.org/10.5762/KAIS.2020.21.11.171
ISSN 1975-4701 / eISSN 2288-4688

간호대학생의 임상실습만족도와 간호사역할이행 관계에서 회복탄력성의 매개효과

한미라
울산과학대학교 간호학과

Mediating Effect of Resilience in Relationship between Satisfaction with Clinical Placement and Role Transition among Nursing Students

Mira Han
Deparment of Nursing, Ulsan College

요 약 본 연구는 간호대학생의 임상실습만족도와 간호사역할이행 관계에서 회복탄력성의 매개효과를 확인하기 위해 시도되었다. 연구대상자는 C도 소재의 2개 대학에서 편의추출한 간호학과 4학년 학생을 대상으로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하여 자료수집을 하였고, 최종적으로 분석에 참여한 대상자 수는 135명이었다. 수집된 자료는 SPSS 21.0을 이용하여 기술통계, 독립표본 t-test, 일원배치분산분석, Pearson's correlation coefficient, Baron과 Kenny의 3단계 회귀분석을 실시하였고, 회복탄력성의 매개효과 유의성을 확인하기 위해 SPSS의 Process macro를 활용한 부트스트래핑 방법을 사용하였다. 연구결과 간호대학생의 임상실습만족도의 평균점수는 3.32점, 회복탄력성 3.68점, 간호사역할이행 3.48점이었고, 일반적 특성 중 전공만족도, 평균 학점, 지각하는 건강 수준, 임상실습 동안 동료관계에 따라 간호사역할이행에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간호사역할이행은 회복탄력성(r=.76, p<.001), 임상실습만족도(r=.50, p<.001)와 유의한 양의 상관관계를 나타냈다. 매개효과를 확인하기 위한 회귀분석 결과 간호대학생의 임상실습만족도와 간호사역할이행 관계에서 회복탄력성의 부분적 매개역할이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확인되었고, 설명력은 66%, 간접효과 값은 .16이었다. 본 연구의 결과를 근거로 간호대학생의 간호사역할이행 수준 향상을 위해 회복탄력성을 증진시키는 다양한 중재 개발과 추가적 연구가 필요하다.

Abstract This study was conducted to investigate the mediating effect of resilience in the relationship between satisfaction with clinical placement and role transition among nursing students. A descriptive survey with convenience sampling was conducted among senior year nursing students from two nursing colleges in C province. Data were collected using a self-administrated questionnaire, and a total of 135 samples were analyzed with the IBM SPSS 21.0 program using multiple regression by Baron's and Kenny's method. As a result, resilience was found to have a partial mediating effect on the relationship between satisfaction with clinical placement and role transition. The statistical significance of the mediating effect was verified using bootstrapping, and these variables explained 66% of role transition among nursing students. These results imply that promoting nursing students' resilience can be a valuable strategy to support successful role transition for nursing students.

Keywords : Nursing students, Role transition, Resilience, Satisfaction with clinical placement, Mediating effect

이 논문은 2019년 울산과학대학교 교내학술연구비 지원에 의해 수행됨.
*Corresponding Author : Mira Han(Ulsan College)
email: mrhan@uc.ac.kr
Received July 31, 2020 Revised August 26, 2020
Accepted November 6, 2020 Published November 30, 2020

1. 서론

1.1 연구의 필요성

간호학은 병원 및 다양한 보건 의료 환경을 실무 현장으로 하는 학문의 특성상 대학 교육과정에서 이론적 지식 뿐 아니라 임상실습교육이 필수적이며 중요하다. 간호학생들은 이론과 지식으로 배운 것을 토대로 임상현장에서 진행되는 실습교육을 통해 간호사로서 가치관, 태도, 실무를 직·간접으로 경험하며 간호사로서 역할을 점차적으로 습득하게 된다[1].

최근 환자의 권리와 안전이 강조되는 의료환경에서 습득한 지식을 종합하여 임상현장에서 적용하고 훈련하는 이론과 실습교육 연계성 저하로 간호대학생들은 임상현장에 대한 부적응, 자신감 결여, 높은 스트레스 등을 경험하고 있다[2]. 또한 인력부족, 높은 스트레스, 실수가 용납되지 않는 의료현장에서 실습생이라는 수직적 관계에서 관찰 위주의 임상실습 동안 학생들은 무례함와 소진을 경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3]. 이렇듯 간호대학생들은 엄격한 의료환경에서 수동적 임상실습으로 혼란과 스트레스, 불안감을 경험하고 임상실습에 대한 만족도 감소를 초래하게 된다[4,5].

임상실습만족도는 임상실습 교육에서 학생들이 학습자로서 실습내용, 지도, 환경, 시간 등 실습관련 다양한 영역을 경험한 반응을 의미하며, 교육자에게는 실습교육 개선을 위해 주목해야할 평가지표이기도 하다[6]. 간호대학생의 임상실습만족도가 높을수록 간호사에 대한 긍정적 이미지 형성과 정체성 형성과[7], 전문직 간호사로서 가치관인 간호전문직관[8], 간호사의 실무역량인 임상수행능력[8,9]도 높았다. 즉, 간호대학생의 낮은 임상실습만족도는 단순히 간호교육의 이슈를 넘어선 전문직간호사로서 가치관 및 역할수행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므로 임상실습만족도 향상을 위한 다각적 관심과 연구가 요구된다.

간호학과의 교육과정은 졸업 후 간호사로서 역할에 필요한 역량을 달성하여, 간호사로 역할이행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지도록 목표로 하고 있다. 국내의 연구에서 간호대학생의 간호사로의 역할 이행에 영향을 미치는 여러 요인들 중 임상실습만족도가 가장 큰 영향요인이었고[10], 신규간호사가 되어서 겪는 현실충격이 클수록 이직의도가 높았다[11]. 따라서 신규간호사의 현실적 충격을 완화하여 근무적응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간호대학생의 성공적인 간호사 역할이행 촉진을 위한 전략이 필요하다.

회복탄력성은 스트레스나 역경을 극복하고 성공적 적응에 발휘되는 긍정적 능력을 말한다[12]. 특히, 간호대학생은 간호교육평가원에서 요구하는 1,000시간 이상의 필수 임상실습시간 동안 임상현장에서 직면하게 되는 스트레스와 어려움을 이겨내며 실습목표를 성취하기 위해 회복탄력성이 필수적으로 요구된다. 선행연구에서 간호대학생의 임상실습만족도가 높을수록 간호사로의 역할이행정도가 높았다[4,10]. 간호대학생의 회복탄력성이 높을수록 임상실습스트레스는 감소하였고[13], 실습스트레스가 높을수록 실습만족도가 유의하게 감소하였지만[8], 회복탄력성이 높을수록 임상실습만족도는 증가하였다[14]. 이상을 종합하면, 간호대학생의 임상실습만족도와 간호사로의 역할이행의 관계에서 회복탄력성이 임상실습 상황에서 직면하게 되는 다양한 스트레스, 소진 등의 부정적 경험을 긍정적으로 대처하도록 하여 간호사로서 역할이행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지금까지 국내 간호대학생의 간호사로의 역할이행과 관련된 연구는 제한적이며[4,10,15]. 졸업을 앞둔 간호학과 4학년생의 임상실습만족도와 간호사로의 역할이행관계에서 회복탄력성의 매개효과를 확인하고자 하는 연구는 부족한 현실이다. 따라서 회복탄력성의 매개요인으로 작용여부를 확인하여 간호사로의 역할이행을 증진시킬 방안 모색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연구가 필요하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세 변수들 간의 영향관계와 경로를 규명하여, 간호대학생의 간호사로의 역할이행 증진을 위한 중재개발을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한다.

1.2 연구의 목적

본 연구는 간호학과 4학년 학생의 임상실습만족도, 회복탄력성, 간호사역할이행 간의 영향을 분석하고, 임상실습만족도와 간호사역할이행 관계에서 회복탄력성의 매개효과를 파악하기 위함으로 구체적 목표는 다음과 같다.

1)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임상실습만족도, 간호사역할이행, 회복탄력성의 차이를 확인한다.
2) 대상자의 임상실습만족도, 간호사역할이행, 회복탄력성 간의 상관관계를 파악한다.
3) 대상자의 임상실습만족도과 간호사역할이행 관계에서 회복탄력성의 매개효과를 검정한다.

2. 연구방법

2.1 연구설계

본 연구는 간호대학생의 임상실습만족도, 간호사역할이행의 관계에서 회복탄력성의 매개효과를 확인하고자 하는 서술적 조사연구이다.

2.2 연구대상 및 자료수집

본 연구는 C도 소재의 2개 전문대학교 간호학과 4학년 학생을 대상으로 자가보고식 설문지를 통해 자료를 수집하였다. 적정 표본수는 G*power 3.1.9.4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다중회귀분석, 중간효과크기 .15, 유의수준 .05, 검정력(1-β) .85, 예측변수 8개로 계산한 결과 120명이었다. 불완전한 설문지 8부를 제외한 135명의 설문지를 분석하여 표본수를 충족하였다. 본 연구는 연구자 소속 대학교의 기관생명윤리위원회의 승인(IRB No.1044363-A-2019-004) 후 시행되었다. 연구대상자에게 연구목적, 방법, 설문지 내용 및 소요시간, 개인정보 보호 방침 등이 명시된 설명서를 설문지 첫 장에 제공하고, 연구참여동의서에 자발적으로 서명한 대상자에 한하여 조사를 실시하였다. 설문지 배부시 소정의 문구류를 제공하였다.

2.3 연구도구

2.3.1 임상실습만족도

임상실습만족도는 간호사에게 요구되는 가치관, 태도, 간호에 대한 이미지 형성 및 전문직 간호사로 역할을 훈련할 수 있는 교육과정에 대한 만족도[1]를 말하며, Lee 등[7]이 사용한 도구를 사용하였다. 총 31문항으로 실습교과 3문항, 실습내용 6문항, 실습지도 9문항, 실습환경 7문항, 실습시간 3문항, 실습평가 3문항으로 구성되었다. 각 항목은 5점 Likert 척도로 '전혀 그렇지 않다' 1점에서 '매우 그렇다' 5점으로 점수가 높을수록 임상실습만족도가 높은 것을 의미한다. 도구의 신뢰도는 Lee 등[7]의 연구에서 Cronbach's alpha는 .87이었고, 본 연구에서는 .92이었다.

2.3.2 간호사역할이행

간호사로의 역할이행은 간호대학 교육과정을 통해 습득한 지식, 실습 등을 바탕으로 간호대학생의 간호사 역할로 이행 정도를 의미하며[17], Doody 등[17]이 개발한 것을, Lee 등[4]이 번역한 도구를 사용하였다. 총 28문항으로, 역할준비 6문항, 역할역량 9문항, 조직과지지 13문항으로 구성되었다. 각 항목은 5점 Likert 척도로 '전혀 그렇지 않다' 1점에서 '매우 그렇다' 5점으로 점수가 높을수록 간호사로 역할이행이 잘 된 것을 의미한다. 도구의 신뢰도는 Lee 등[4]의 연구에서 Cronbach's alpha는 .91이었고, 본 연구에서는 .94이었다.

2.3.3 회복탄력성

회복탄력성은 역경을 극복하고, 경험을 바탕으로 강하게 성장할 수 있는 능력[12]으로, Yang 등[16]이 개발한 도구를 사용하였다. 총 24문항으로, 자신감 3문항, 긍정성 4문항, 대처능력 2문항, 감정조절능력3문항, 조직적스타일 4문항, 관계성 4문항, 사회적지지 4문항으로 구성되었다. 각 항목은 5점 Likert 척도로 '전혀 그렇지 않다' 1점에서 '매우 그렇다' 5점으로 점수가 높을수록 회복탄력성이 높은 것을 의미한다. 도구의 신뢰도는 Yang 등[16]의 연구에서 Cronbach's alpha는 .84이었고, 본 연구에서는 .92이었다.

2.4 자료분석

본 연구에서 수집된 자료는 SPSS 21.0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은 빈도와 백분율, 평균, 표준편차의 서술통계를 사용하였고, 임상실습만족도, 회복탄력성, 간호사역할이행은 평균과 표준편차를 구하였다. 일반적 특성에 따른 임상실습만족도, 간호사역할이행, 회복탄력성은 독립표본 t-test, 일원배치분산분석, 사후검정은 Scheffe 방법으로 분석하였다. 변수간의 상관관계는 Pearson's correlation coefficient로 분석하였다. 회복탄력성의 매개효과를 검증하기 위해 Baron과 Kenny [18]의 3단계 회귀분석을 실시하였고, 매개효과의 유의성 검증은 Sobel test에 비해 2종 오류 감소와 검정력이 높다고 보고된[19] SPSS의 Process macro를 활용한 부트스트래핑 방법을 사용하였다.

3. 연구결과

3.1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대상자의 성별은 여자가 113명(83.7%)이었고, 평균연령은 23.7세였다. 전공에 대한 만족하다고 대답한 경우가 68명(50.4%)로 가장 높았고, 대상자 중 117명(87.7%)의 평균학점이 3.0점 이상이었다. 본인이 지각하

는 건강상태는 78명(57.8%)이 양호로 응답하였고, 임상실습 동안 동료와 관계가 나빴다고 생각한 경우는 없었다(Table 1).

Table 1. General characteristics (N=135)

Variables	Categories	N(%) or M±SD
Gender	Male	22(16.3)
	Female	113(83.7)
Age(year)		23.7±3.0
Satisfaction in major	Satisfied	68(50.4)
	Moderate	60(44.4)
	Unsatisfied	7(5.2)
Average GPA	≥ 4.0	20(14.8)
	3.5 ~ 3.9	47(34.8)
	3.0 ~ 3.4	50(37.0)
	〈 3.0	18(13.3)
Perceived health status	Good	78(57.8)
	Average	51(37.8)
	Poor	6(4.4)
Relationship with colleague during clinical practice	Good	99(73.3)
	Average	36(26.7)
	Poor	0(0.0)

3.2 대상자의 특성에 따른 임상실습만족도, 간호사 역할이행, 회복탄력성 정도의 차이

대상자의 임상실습만족도는 남성이 여성보다 (p=.018), 전공만족군이 불만족군보다(p=.014), 평균학점이 4.0점 이상인 군이 3.0~3.4점인 군에 비해 (p=.009), 임상실습동안 동료관계가 양호한 군이 보통인 군에 비해(p=.007),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높았다. 간호사 역할이행은 전공만족도가 보통과 만족군이 불만족 군에 비해(p<.001), 평균학점이 4.0점 이상군이 3.0~3.5점인 군에 비해(p=.013), 지각하는 건강상태가 양호한 군이 건강하지 않다는 군에 비해(p<.001), 임상실습동안 동료관계가 양호한 군이 보통인 군에 비해(p<.001),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높았다. 회복탄력성은 전공만족군이 불만족군보다(p=.001), 평균성적이 4.0점 이상인 군이 그렇지 않은 군들에 비해(p=.003), 임상실습동안 동료관계가 양호한 군이 보통인 군에 비해(p<.001),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높았다(Table 2).

Table 2. Differences in variables according to general characteristics (N=135)

Variables	Categories	Satisfaction with clinical placement		Role transition		Resilience	
		M±SD	t or F(p) Scheffe	M±SD	t or F(p) Scheffe	M±SD	t or F(p) Scheffe
Gender	Male	3.54±0.40	-2.40 (.018)	3.64±0.45	-1.77 (.080)	3.75±0.40	-0.75 (.454)
	Female	3.28±0.47		3.45±0.48		3.67±0.47	
Satisfaction in major	Satisfied[a]	3.43±0.48	4.39 (.014) a>c	3.62±0.47	10.10 (<.001) a,b>c	3.80±0.50	7.06 (.001) a>c
	Moderate[b]	3.24±0.42		3.39±0.41		3.60±0.37	
	Unsatisfied[c]	3.03±0.48		2.91±0.55		3.24±0.38	
Average GPA	≥ 4.0[a]	3.61±0.43	3.98 (.009) a>c	3.76±0.48	3.73 (.013) a>c	4.02±0.42	4.79 (.003) a>b,c,d
	3.5 ~ 3.9[b]	3.28±0.46		3.47±0.41		3.64±0.45	
	3.0 ~ 3.4[c]	3.22±0.45		3.35±0.52		3.59±0.45	
	〈 3.0[d]	3.42±0.43		3.54±0.44		3.66±0.43	
Perceived health status	Good[a]	3.40±0.47	2.79 (.065)	3.64±0.44	14.08 (<.001) a>c	3.82±0.43	9.30 (<.001) a>c
	Average[b]	3.23±0.44		3.27±0.44		3.50±0.44	
	Poor[c]	3.13±0.41		3.08±0.31		3.40±0.31	
Relationship with colleague during clinical placement	Good[a]	3.39±0.47	-2.73 (.007)	3.61±0.44	-5.73 (<.001)	3.79±0.43	-5.07 (<.001)
	Average[b]	3.15±0.38		3.13±0.39		3.37±0.41	
	Poor[c]	-		-		-	

3.3 대상자의 임상실습만족도, 간호사역할이행, 회복탄력성 정도

대상자의 임상실습만족도 평균은 5점 만점 중 3.32점이었으며, 하위영역 중 실습내용만족도가 2.97점으로 가장 낮았고, 실습환경만족도가 3.52점으로 가장 높았다. 간호사역할이행의 평균은 5점 만점 중 3.48점이었으며, 하위역량 중 가장 높았던 역할역량이 3.58점 수준으로 나타났다. 회복탄력성의 평균은 5점 만점 중 3.68점이었으며, 하위영역 중 조직적스타일 점수가 3.10점으로 가장 낮았으며, 사회적지지가 3.91점으로 가장 높았다(Table 3).

Table 3. Levels of major variables (N=135)

Variables		M±SD
Satisfaction with clinical placement	Mean	3.32±0.46
	Subject	3.45±0.62
	Content	2.97±0.55
	Instruction	3.36±0.56
	Environment	3.52±0.54
	Time	3.19±0.86
	Evaluation	3.48±0.71
Role transition	Mean	3.48±0.48
	Role preparation	3.23±0.64
	Role competence	3.58±0.51
	Organization and support	3.53±0.50
Resilience	Mean	3.68±0.46
	Self confidence	3.66±0.57
	Relationship	3.66±0.60
	Positivity	3.83±0.60
	Coping ability	3.59±0.63
	Social support	3.91±0.60
	Emotional regulation	3.61±0.63
	Structural style	3.10±0.67

3.4 임상실습만족도, 간호사역할이행, 회복탄력성의 상관관계

대상자의 세 변수간의 상관관계를 분석한 결과, 간호사역할이행과 회복탄력성(r=.76, p<.001), 임상실습만족도(r=.50, p<.001) 순으로 통계적으로 유의한 양의 상관관계를 나타났다(Table 4).

Table 4. Correlation among variables (N=135)

Variables	SCP	RT	R
	r(p)	r(p)	r(p)
SCP	1		
RT	.50(<.001)	1	
R	.44(<.001)	.76(<.001)	1

SCP=Satisfaction with Clinical Placement; RT=Role Transition; R=Resilience

3.5 임상실습만족도와 간호사역할이행의 관계에서 회복탄력성의 매개효과

임상실습만족도와 간호사역할이행 관계에서 회복탄력성의 매개효과 검증을 위해 Barron and Kenny의 회귀분석 3단계를 수행하였다. 회귀분석을 실시하기 전에 종속변수의 자기상관과 독립변수 간 다중공선성을 확인하였다. 그 결과 Durbin-Watson 값은 1.919로 2에 가까워 오차항들 간은 자기상관 없이 독립적이었으며, 분산팽창지수는 1.319~6.477로 10미만으로 독립변수 간 다중공선성은 없는 것으로 확인되어 회귀분석에 적합하였다.

매개효과 검증을 위해 3단계 회귀분석을 실시하였고, 이때 종속변인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을 통제하기 위하여 간호사역할이행에 유의한 차이를 보인 전공만족도, 평균학점, 지각하는 건강상태, 동료관계를 더미변수로 처리하

Table 5. Mediating effects of resilience on role transition (N=135)

Steps	Path	B	SE	β	t(p)	Adjusted R^2	R^2	F(p)
1	SCP → R	.27	.08	.28	3.52 (.001)	.32	.36	7.93 (<.001)
2	SCP → RT	.34	.08	.33	4.53 (<.001)	.41	.46	11.39 (<.001)
3	SCP → RT	.18	.06	.17	2.85 (.005)	.63	.66	23.63 (<.001)
	R → RT	.59	.07	.57	8.60 (<.001)			

SCP=Satisfaction with Clinical Placement; R=Resilience; RT=Role Transition

Table 6. Bootstrapping result of indirect effect of resilience (N=135)

Path	Indirect effect	SE	95% CI	
			LLCI	ULCI
SCP → R → RT	.16	.05	.06	.27

SCP=Satisfaction with Clinical Placement; R=Resilience; RT=Role Transition; CI=Confidence Interval; LLCI=Lower Limit Confidence Interval; ULCI=Upper Limit Confidence Interval.

여 통제변인으로 설정하여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1단계에서 독립변수인 임상실습만족도는 매개변수인 회복탄력성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력을 나타냈다(β=.28, p=.001). 2단계의 독립변수가 종속변수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한 결과 임상실습만족도의 간호사역할이행에 유의한 영향력을 확인하였다(β=.33, p<.001). 3단계의 독립변수와 매개변수가 종속변수에 미치는 영향을 검정한 결과, 임상실습만족도(β=.17, p=.005)와 회복탄력성(β=.57, p<.001)이 각 각 간호사역할이행에 유의한 영향을 미쳤다. 한편 종속변수에 대한 독립변수의 영향력이 2단계 회귀계수(β=.33)에 비해 3단계 회귀계수(β=.17)가 감소되어 임상실습만족도와 간호사역할이행 관계에서 회복탄력성의 부분매개효과가 있었고, 설명력은 66%였다(Table 5).

회복탄력성의 매개효과의 유의성을 확인하기 위해 Preacher 와 Hayes[19]의 SPSS의 Process macro를 활용한 부트스트래핑 방법을 사용하였다. 부트스트래핑 방법은 표본수와 동일한 크기의 표본을 반복 추출하여 매개효과의 신뢰구간을 구하는 것으로, 본 연구에서 재추출한 표본수는 5,000개였다. 부트스트래핑 결과 95% 신뢰구간(.06~.27)이 0을 포함하지 않아 간접효과는 유의하였고, 간접효과 값은 .16이었다(Table 6).

4. 논의

본 연구는 간호대학생의 임상실습만족도와 간호사역할이행 관계에서 회복탄력성의 매개효과를 규명하여, 간호대학생의 간호사로의 역할이행 증진을 위한 중재개발에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시도되었다.

연구대상자의 임상실습만족도는 5점 만점에 3.32점으로 동일한 대상과 도구를 사용한 선행연구[9.14]의 3.46점, 3.50점과 비슷한 수준이었다. 하부영역을 살펴보면 실습환경, 실습지도와 실습평가 점수는 평균보다 높았으나, 실습내용과 실습시간은 점수가 낮았다. 이는 선행연구[9.14]의 만족도가 상대적으로 낮았던 하위영역과 유사하였다. 실습현장에서 현장실무를 습득하는 내용보다는 관련 과제 및 학습 점검과[9], 관찰 위주로 진행되는 정해진 실습시간에 대한 불만족이 반영된 것으로 생각된다. 임상실습만족도 향상을 위한 실습내용의 내실화를 위해 교수자의 노력으로만 한계가 있으므로, 임상현장과 긴밀한 협력적 노력이 더욱 요구되고 있다.

간호사역할이행은 5점 만점 중 3.48점으로, 본 연구와 동일한 도구를 사용하고 4학년만을 대상으로 한 선행연구[4]의 3.34점과 유사하였다. 한편, 간호사역할이행의 하위영역 중 역할준비가 가장 낮아 선행연구[4,10]의 결과와도 일치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간호대학생은 간호사 역할을 미리 수행해보는 리허설과 같은 교육적 경험인 임상실습을 통해 간호사로서 실제적 역할수행을 준비하게 되는데, 이에 대한 인식이 저조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한편, 국내 간호대학생 대상의 연구[15]에서 관찰 위주와 부정적 인식의 임상실습 경험이 많은 4학년의 간호사역할이행에 대한 인식수준이 3학년보다 낮음을 보고하였다. 따라서, 간호대학생의 마지막 임상실습에서 교대근무, 책임범위, 갈등조정, 다 직역 간 소통 등의 간호사 업무 및 역할에 대한 실제적 이해를 높이고, 학생별의 준비도를 확인하여 학생에게 필요한 질적인 감독 및 지지를 제공하는 등[20], 학생 개인의 준비 정도에 따른 학생별 질적인 관리방법을 활용한 간호사역할이행을 촉진하는 전략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된다.

연구대상자의 회복탄력성은 5점 만점에 3.66점으로 동일한 대상과 도구를 사용한 선행연구[14]의 3.79점, 선행연구[21]의 3.72점과 비슷하였고, 하부영역 중 사회적 지지의 점수가 가장 높고, 조직적스타일이 가장 낮았다. 간호대학생의 대상의 회복탄력성의 하부영역에서 조직적 스타일 점수가 가장 저조한 결과는 선행연구[14,21]에서 지지되고 있다. 조직적스타일은 학업, 과제, 할일 등의 일상 업무를 계획 및 조직하는 방식[16]을 의미한다. 특히 본 연구대상자인 4학년 학생들은 학업, 실습, 취업과 국가시험 등 여러 일정을 계획하고 실행해야 하는 상황에 노출되면서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유추할 수 있다. 4학년들이 겪는 어려움은 학년 진급과 관련하여 예상할 수

있으므로, 학생의 대학생활 상담시 적극적으로 고려하여 학생들이 극복할 수 있도록 지도하는 것이 필요하다.

본 연구결과 간호대학생의 임상실습만족도, 회복탄력성과 간호사역할이행은 모두 유의한 양의 상관관계를 나타냈다. 간호대학생의 전공만족도[22], 임상실습만족도[14]가 회복탄력성과 양의 상관관계가 있다는 결과와 유사하고, 임상실습만족도와 간호사역할이행이 관련성이 있다는 연구결과[4,10]와 동일하였다. 한편, 회복탄력성과 간호사역할이행 사이의 유의한 양의 상관관계는 간호학생 대상의 실험연구에서 종속변수의 결과로 두 변수 간의 상관성을 확인한 선행연구[23]의 결과와 일치한다. 또한 간호학생 대상의 연구에서 회복탄력성에 기본 요소로 생각되는 감성지능이 회복탄력성과 양의 상관관계가 있고[14,15], 그 감성지능이 간호사역할이행에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결과[15]는 본 연구의 결과와 일맥상통하다고 생각된다. 특히 회복탄력성과 간호사역할이행 변수 간 관련성에 대한 선행연구가 부족하므로, 본 연구결과를 토대로 반복연구가 필요하다.

한편, 대상자의 특성 가운데 전공만족도가 높고, 평균학점이 높고, 스스로가 매우 건강하다고 생각하며, 임상실습 동안 동료관계가 좋을수록 간호사역할이행 점수가 높았다. 이는 학생의 학업성취도와 관련 요인 뿐아니라 실무현장에서 간호사 역할 수행시 요구되는 건강과 대인관계능력이 중요하다는 것을 시사하므로, 교과 및 교과외 활동 지도시 고려한다면 간호사역할이행의 수준 향상을 도모할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에서 임상실습만족도와 간호사역할이행관계에서 회복탄력성의 매개효과를 검증하기 위해 간호사역할이행에 유의한 차이를 나타낸 전공만족도, 학점, 주관적 건강상태 인식, 실습시 동료관계를 통제변인으로 하여 분석한 결과, 회복탄력성의 부분매개효과가 확인되었다. 즉 간호대학생의 졸업 후 간호사로서 역할이행을 촉진하기 위하여, 임상실습교육에 대한 만족도 향상을 위한 노력과 회복탄력성을 강화시키기 위한 전략이 필요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결과는 선행연구를 찾기 어려워 직접 비교는 어렵지만, Meyer와 Shatoo[24]의 졸업 후 신규 간호사로서 처음 1년 간 대상자의 57%가 간호사로서 역할에 준비되었다고 하였고, 대상자의 회복탄력성의 간호사역할이행에 대해 79%의 설명력을 보고하여 회복탄력성이 간호사의 역할이행에 긍정적 영향을 보고한 결과와 일맥상통하다. Walsh 등[25]은 간호대학생의 회복탄력성을 증진시키기 위한 5가지 교육전략으로 동료활동, 성찰적 활동, 유도된 학습(directed study), 문제중심학습, 경험학습을 제시하였는데, 수업설계 시 참고할 만한 요소라 할 수 있다. 간호사는 스트레스가 높은 직업군으로, 특히 신규간호사의 경우 임상현장에서 경험하는 높은 스트레스와 현실충격이 높은 이직의도로 연결된다[10]. 따라서, 간호대학생 때부터 어려움을 극복과 적응에 요구되는 회복탄력성 증진을 통해 간호사역할이행으로 준비되도록 도울 수 있는 다양한 전략개발이 매우 중요하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결과 간호대학생의 성공적인 간호사로 역할이행을 위해 임상실습만족도와 회복탄력성 모두를 증진시키기 위한 교육적 전략을 모색할 필요가 있어 이에 대해 논의하고자 한다. 최근 갑작스런 코로나 상황으로 인해 간호학과의 임상실습이 제한되면서, 간호사역할이행을 돕기 위한 새로운 교육방법과 전략에 대한 관심이 더욱 증가하고 있다. 특히, 병원에서 임상실습과 유사하게 교내에서 고충실도 마네킹을 활용한 시뮬레이션실습과 가상현실 프로그램 이용한 임상실습 등 다양한 디지털 컨텐츠를 활용한 비대면 온라인 수업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선행연구에서 Han[23]은 간호학과 4학년을 대상으로 시뮬레이션실습 교육 후 간호사역할이행 정도의 향상, Shin 등[26]은 간호교육에서 가상현실시뮬레이션을 임상실습교육 목적으로 사용하여, 교육효과 가운데 학습자의 만족도가 가장 높았다고 보고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임상실습이 제한되는 상황에서, 실습교과목의 교육목표에 부합하는 교내의 시뮬레이션수업 또는 온라인 가상현실시뮬레이션을 활용하여 임상실습교과목의 학습경험을 일부 대체하고, 실습만족도를 향상시킬 수 있음을 시사한다. 비슷한 맥락으로, 시뮬레이션실습 교육 후 대상자의 회복탄력성이 향상되었고[23], 의사소통기술 코스에서 소셜네트워크 활용이 많을수록 간호대학생 개인 및 그룹의 회복탄력성이 높았으며[27], 간호사로 역할이행의 촉진을 목표로 마지막 학기 실습에서 온라인 모듈을 활용한 연구[28]를 확인할 수 있었다. 이는 간호대학생의 회복탄력성과 간호사역할이행 증진을 위한 코로나 상황에서 활용 해 볼 만한 교육전략으로 생각되며 향후 축적된 연구결과가 필요한 영역이다. 이상을 종합해보면, 갑작스럽게 도래한 언택트 교육시대에 간호대학생의 임상실습만족도와 회복탄력성 증진시켜 간호사역할이행을 촉진하기 위한 교육적 전략으로, 다양한 시뮬레이션 교육방법과 Zoom과 같은 온라인 플랫폼 활용의 효용성을 기대할 수 있다. 따라서 간호교육자에게 현재의 변화된 임상실습 교육환경에서 간호대학생이 졸업 후 성공적으로 간호사 역할로 전환될 수 있도록 임상실습만족도와 회복탄력성 증진을 위해 시뮬레이션 교육법을 포함한 다

양한 학습 및 교육적 방법과 전략을 개발 및 적용하고 그 효과를 측정하는 노력이 요구된다.

5. 결론 및 제언

본 연구는 간호대학생의 임상실습만족도와 간호사역할이행의 관계에서 회복탄력성의 매개효과를 확인하고, 간호사역할이행 향상을 위한 중재개발을 위한 방안을 모색하고자 간호학과 4학년 학생을 대상으로 실시하였다. 본 연구결과 회복탄력성은 임상실습만족도와 간호사역할이행의 관계에서 부분매개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변화된 실습교육 환경에서 간호대학생의 성공적인 간호사역할이행으로 전환을 돕기 위한 임상실습만족도 향상과 회복탄력성 강화를 위해 활용 가능한 다양한 중재 개발이 요구된다.

연구결과를 토대로 향후 연구에 대해 아래와 같이 제언하고자 한다. 첫째, 본 연구의 대상자는 2개 대학의 간호대학생 4학년을 대상으로 하였으므로, 대상자를 확대하여 반복연구가 필요하다. 둘째, 임상실습에서 고충실도 시뮬레이션, 가상현실시뮬레이션 등 다양한 시뮬레이션 교육방법을 적용하여 회복탄력성과 간호사역할이행을 결과변수로 측정하는 실험연구가 필요하다.

References

[1] M. Y. Park, S. Y. Kim, "A qualitative study of nursing students' first clinical experience", *The Journal of Korea Academic Society of Nursing Education*, Vol. 6, No. 1, pp.23-35, 2000.

[2] K. H. Yang, G. Y. Ko, M. H. Kim, S. Park, S. J. Park, "Strategies to improve clinical practice of nursing students: content analysis approach", *The Journal of Korean Research,* Vol. 2, No. 1, pp.47-55, 2018.

[3] J. G. Kim, J. H. Yoo, E. Y. Cheon, "Relationship among incivility, burnout, coping and satisfaction to clinical practice experienced by nursing college students in clinical practice", *Journal of the Korea Academia-Industrial Cooperation Society*, Vol. 18, No. 1, pp.316-324, 2017.
DOI: https://doi.org/10.5762/KAIS.2017.18.1.316

[4] W. S. Lee, J. Y. Uhm, T. Lee, "Role transition of senior year nursing students: analysis of predictors for role transition", *Journal of Korean Academy of Nursing Administration*, Vol. 20, No. 2, pp.187-194, March 2014.
DOI: https://doi.org/10.11111/jkana.2014.20.2.187

[5] M. S. Chung, "The relations of self-esteem. practical performance, and practical satisfaction in nursing students", *Journal of Korean Academy of Psychiatric and Mental Health Nursing,* Vol. 18, No. 1, pp. 60-68, March 2009.

[6] S. H. Kim, "Influences of clinical practice satisfaction and the mediating effect of confidence in practice of core basic nursing skills between proactive personality and clinical practice satisfaction among nursing students", *Journal of Leaner-Centered Curriculum and Instruction,* Vol. 17, No. 12, pp.163-182, 2017.
DOI: http://dx.doi.org/10.22251/jlcci.2017.17.12.163

[7] S. H. Lee, S. Y. Kim, J. A. Kim, "Nursing students' image of Nurse and satisfaction with clinical practice", *Journal of Korean Academy of Nursing Administration*, Vol. 10, No. 2, pp.219-231, 2004.

[8] B. J. Park, S. J. Park, H. Cho, "The relationship between clinical practice stress, satisfaction of clinical practice, clinical performance ability and the nursing profession in nursing college students", *Journal of the Korea Academia-Industrial Cooperation Society,* Vol. 17, No. 7, pp.220-227, 2016.
DOI: http://dx.doi.org/10.5762/KAIS.2016.17.7.220

[9] Y. M. Kim, J. M. Park, S. Yoon, "A study on professional self-concept, clinical practice satisfaction, clinical practice stress, clinical performance ability of nursing college students after women health nursing clinical practice", *Asia-pacific Journal of Multimedia Service Convergent with Art, Humanities, and Sociology*", Vol. 9, No. 8, pp.373-385, August 2019.
DOI: http://dx.doi.org/10.35873/ajmahs.2019.9.8.033

[10] S. Lee, S. Kim, "The factors of role transition perceived by the nursing student in clinical practice", *Journal of Leaner-Centered Curriculum and Instruction,* Vol. 17, No. 21, pp.405-420, 2017.
DOI: http://dx.doi.org/10.22251/jlcci.2017.17.21.405

[11] S. Y. Lee, J. H. Lee, "The effects of reality shock on turnover intention in new nurses: focused on the mediating effect of nursing professionalism and compensation equity", *Journal of Leaner - Centered Curriculum and Instruction,* Vol. 20, No. 4, pp.677-693, 2020.
DOI: http://dx.doi.org/10.22251/jlcci.2017.17.21.405

[12] T. Stephens, "Nursing student resilience: a concept clarification", *Nursing Forum*, Vol. 48, No. 2, pp.125-133, April 2013.
DOI: http://dx.doi.org/10.1111/nuf.12015

[13] M. J. Shin, Y. E. Chun, "Convergence among resilience, clinical performance ability, stress in clinical practice of nursing students", *Journal of the Korea Society*, Vol. 9, No. 2, pp.19-32, 2018.
DOI: https://doi.org/10.15207/JKCS.2018.9.2.019

[14] S. G. Kim, E. S. Do, "Affect of emotional resilience caring efficacy and resilience on satisfaction on

clinical practice in nursing students", *Journal of the Korea Academia-Industrial Cooperation Society*, Vol. 20, No. 8, pp.231-239, 2019.
DOI: https://doi.org/10.5762/KAIS.2019.20.8.231

[15] H. J. Choi, "Relationships between nursing competency and emotional intelligence and nurse role transition of nursing students", *Journal of Digital Convergence*, Vol. 17, No. 9, pp.221-229, 2019.
DOI: https://doi.org/10.14400/jdc.2019.17.9.221

[16] Y. H. Yang, E. M. Kim, M. Yu, S. M. Park, H. Y. Lee, "Development of the resilience scale for korean nursing college students", *Korean Journal of Adult Nursing,* Vol. 27, No. 3, pp.337-346, June 2015.
DOI: http://dx.doi.org/10.7475/kjan.2015.27.3.337

[17] O. Doody, D. Touhy, C. Deasy. "Final-year student nurses' perceptions of role transition", *British Journal of Nursing*, Vol. 21, No. 11, pp.684-688, 2012.
DOI: http://dx.doi.org/10.12968/bjon.2012.21.11.684

[18] R. M. Baron, D. A. Kenny, "The moderator - mediator variable distinction in social psychological research: conceptual, strategic, and statistical consideration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Vol. 51, No. 6, pp.1173-1182, 1986.

[19] A. F. Hayes, M. Scharkow, "The relative trustworthiness of inferential tests of indirect effect in statistical mediation analysis: Dose method really matter?", *Psychological Science*, Vol. 24, No. 10, pp.1918-1927, October 2013.
DOI: http://dx.doi.org/10.1177/0956797613480187

[20] A-M Kaihlane, E. Haavisto, C. Strandell-Laine. S. Salminen, "Facilitating the transition from a nursing student to a registered nurse in the final clinical practicum: a scoping literature review", *Scandinavian Journal of Caring Sciences*, Vol. 32, No. 2, pp.466-477, 2018.
DOI: https://doi.org/10.1111/scs.12494

[21] E. H. Jang, " The mediating effect and meaning in life between stress and quality of life on nursing students", *Journal of Leaner-Centered Curriculum and Instruction,* Vol. 19, No. 24, pp.385-403, 2019.
DOI: http://dx.doi.org/10.22251/jlcci.2019.19.24.385

[22] M. H. Nam, H. O. Kim, "Effect of personality and resilience on satisfaction with major in nursing students", *Journal of Korean Academy of Nursing Administration,* Vol. 24, No. 4, pp.298-306, 2018.
DOI: https://doi.org/10.11111/jkana.2018.24.4.298

[23] M. R. Han, "Effect of the simulation-based adult nursing education on resilience, clinical competence, and role transition of nursing students", *Journal of the Korea Entertainment Industry Association*, Vol. 13, No. 4, pp.329-339, 2019.
DOI: https://doi.org/10.21184/jkeia.2019.8.13.6.329

[24] G. Meyer, B. Shatto, "Resilience and transition to practice in direct entry nursing graduates", *Nurse Education in Practice*, Vol. 28, pp.276-279, 2017.
DOI: https://doi.org/10.1016/j.nepr.2017.10.008

[25] P. Walsh, P. A. Owen, N. M. Mustafa, R. Beech, "Learning and teaching approaches promoting resilience in student nurses: an integrated review of the literature", *Nurse Education in Practice,* Vol. 45, pp.102748, 2020.
DOI: https://doi.org/10.1016/j.nepr.2020.102748

[26] H. Shin, D. Rim, H. Kim, H. Kim, S. Park, S. Shon, "Educational characteristics of virtual simulation in nursing: an integrative review", *Clinical Simulation in Nursing*, Vol. 37, pp.18-28, 2019.
DOI: https://doi.org/10.1016/j.ecns.2019.08.002

[27] W. Sigalit, B. Sivia, I. Michal, "Factors associated with nursing students' resilience: communication skills course, use of social media and satisfaction with clinical placement", *Journal of Professional Nursing*, Vol. 33, No. 2, pp.153-161, 2017.
DOI: https://doi.org/10.1016/j.profnurs.2016.08.006

[28] D-L. Baptiste, S. J. M. Shaefer, "Online module to assure success as prelicensure nursing students transition to professional practice", *The Quarterly Review of Distance Education,* Vol. 16, No. 4, pp.1-5, 2015.

한 미 라(Mira Han) [종신회원]

- 2018년 2월 : 연세대학교 간호학과(간호학박사)
- 2013년 3월 ~ 2019년 2월 : 목포가톨릭대학교 간호학과 조교수
- 2019년 3월 ~ 현재 : 울산과학대학교 간호학과 조교수

〈관심분야〉
간호교육, 시뮬레이션교육